



22142041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9 May 2014 (morning)

Vendredi 9 mai 2014 (matin)

Viernes 9 de mayo de 2014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Question 1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Question 2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Choose either Question 1 or Question 2. Write one comparative textual analysis.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La question 1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La question 2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Choisissez soit la question 1, soit la question 2. Rédigez une analyse comparative de text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n la pregunta 1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n la pregunta 2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lija la pregunta 1 o la pregunta 2. Escrib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textos.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문제 1이나 문제 2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 1.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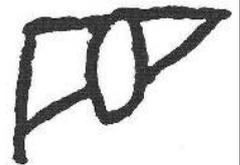
첫 번째 편지 내 **몸**이 한자래요 10

사랑하는 아람에게

네 편지를 받고 무척이나 반가웠다. 어느새 네가 자라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다니. 편지만도 반가운데 한자를 배워 보겠다고? 그것도 엄마의 꼬드김 때문이 아니라 네 스스로 마음 먹은 거라니 기특하기 짝이 없구나. 할머니가 언젠가 너와 악수하며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은 모양이 友(벗 우)자란다.”하고 말했던 것이 너에게 한자를 배우고 싶은 마음의 싹이 되었다니!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벅차오르는구나. 이제부터 할머니가 한자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자는 대체로 사물의 생김새를본떠 그림으로 나타냈던 관습에서 발전한 거란다. 3,000년 전 중국 상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거북의 등이나 소 뼈에 글자를 기록해 남겼어. 이 문자를 “갑골문자”라고 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갑골문자를 보면서 하나씩 익히면 할머니 이야기가 쉽게 이해될 거야. 먼저 옛날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항상 쳐다보는 대상이 사람이었으므로 사람의 요모조모 형상을 그려 많은 글자를 만들어 냈어. 그러니 사람 몸은 한자를 담고 있는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지.

가령 네가 “눈”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자. 네가 눈을 그렸다면 상대방은 그 그림을 보고 “아, 눈을 말하려 하는구나!”하고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지. 그런데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글자를 딱딱한 뼈나 나무에 새겨야 했단다. 그래서 눈을 나타내는 그림 글자를 쓰기 편하게 세워 써서 目(눈 목)자가 된 거란다.



네가 만약 “귀”라는 글자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그리겠니? 옛날 사람들이 그린 글자를 보면 둥그런 모양이 꼭 귀같지 않니? 이 글자는 점차 耳(귀 이)와 같은 형태로 변했어.



(중략)

첫 번째 편지 내 **몸**이 한자래요 11

25 아람아, 어떠니? 한자가 어려워서 어떻게 배울지 걱정이라고 했지? 할머니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한 내용을 읽어 보니 전혀 어렵지 않지?

30 한자는 이처럼 수천 년 전, 아주 아주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냈던 그림 글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면 재미있고 기억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 있단다.

재미있게 읽었는지 답장 주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양동숙 <한자에 세상이 담겼어요> (2003)

글 B

(4) 한문학(漢文學)

한문학은 한국의 문인<sup>1</sup>들이 한자로 쓴 문학 작품을 부르는 말이다. 시대적으로 나누어 문학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문학이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삼국시대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조선 때 이미 한자를 사용한 것 같지만, 작품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만이 전한다.

- 5 삼국시대에는 국사를 기록하고 영토를 확장시킨 국가의 위업을 알리는데 한자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공식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시를 지어내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신라, 발해의 문인들은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 한자를 공식 기록문자로 삼은 것은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학교를 세워 유학<sup>2</sup>을 권장한 시기 이후이다. 이 당시 특히 한문학이 꽃을 피운 시기는 신라 후기였다. 최광유, 최승우,
- 10 박인범, 최지원 등의 6두품<sup>3</sup>의 출신들의 활약으로 한문학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들 중의 상당수가 당나라에 유학하여 급제<sup>4</sup>하였기에 중국의 한문학을 빠른 속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한문학은 고려 전기에는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귀족<sup>5</sup> 문학이 지속되고 한시<sup>6</sup>가 발전하였는데, 고려 후기 한문학에서는 하층민<sup>7</sup>의 억압된<sup>8</sup> 삶을 소재로 한 시, 영웅서사시<sup>9</sup>, 승려들의 불교시 등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15 조선 시대의 한문학은 조선 전기의 사대부<sup>10</sup> 문학과 후기의 실학과 문학<sup>11</sup>으로 나뉘며 또한 조선 후기에는 문인층이 한층 넓어졌다.

한문학이 다른 나라의 글을 빌려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신라시대의 이두(吏讀)<sup>12</sup>, 향가(鄉歌)<sup>13</sup> 등의 한자 이용방식은 이미 육서(六書<sup>14</sup>)와는 그 구성이 달랐으며, 고려·조선 시대의 가사와 조선시대의 공용 서식 등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체제와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한문학은 같은 글자를 사용하였지만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독자적인 민족 정서와 문화를 독창적으로 이끌어 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 20
- 25 구비문학<sup>15</sup>과는 달리 한문학이 국문학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삼국 정립 이후 중국과의 문물 교환이 활발해지고 한문이 일부 계층에 널리 쓰이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에 유학생을 보낸 것도 한문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창식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학의 이해> (2009)

---

1 문인: 문학에 뛰어나고 시를 잘 짓는 사람, 학문과 관계있는 일을 하는 사람  
 2 유학: 중국의 공자를 시조로 하는 전통적인 학문  
 3 6두품: 신라 시대 계급 제도  
 4 급제: 시험에 합격  
 5 귀족: 가문이나 신분이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  
 6 한시: 한자로 쓰인 시  
 7 하층민: 계급이나 신분, 지위, 생활 수준 따위가 낮은 사람  
 8 억압되다: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눌리다  
 9 영웅서사시: 역사상·전설상의 영웅을 주인공으로 그의 사적을 읊은 서사시  
 10 사대부: 계급이 높은 집안의 사람, 문무 양반  
 11 실학과 문학: 조선 시대에 실학파가 창작한 문학  
 12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말을 적은 표기법  
 13 향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14 육서: 한자의 구조, 사용에 대한 여섯 가지 이름  
 15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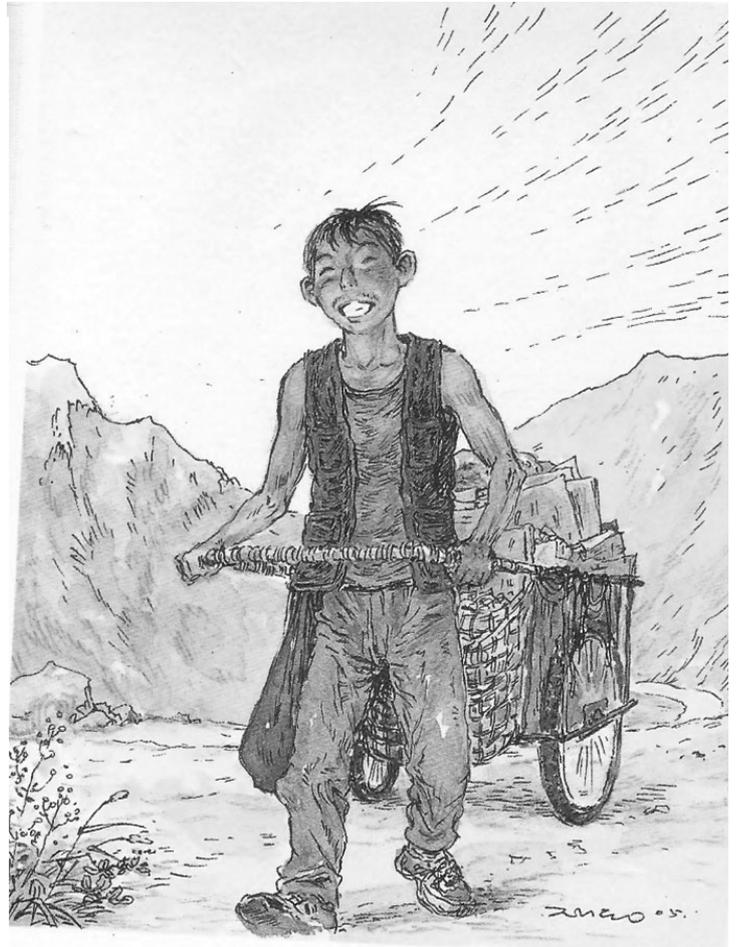
- 2.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C

### 자, 가자! 2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진득한 땀을 많이도 흘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걸음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생각했지.

- 5 누군가 한 말,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 결엔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 준다던.  
 맹별 황토 흙 피할 수 없는 더위
- 10 한 굽이 한 굽이 넘어온 언덕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분다.  
 자, 가자!  
 산들바람이 분다.



박재동, 자, 가자! 2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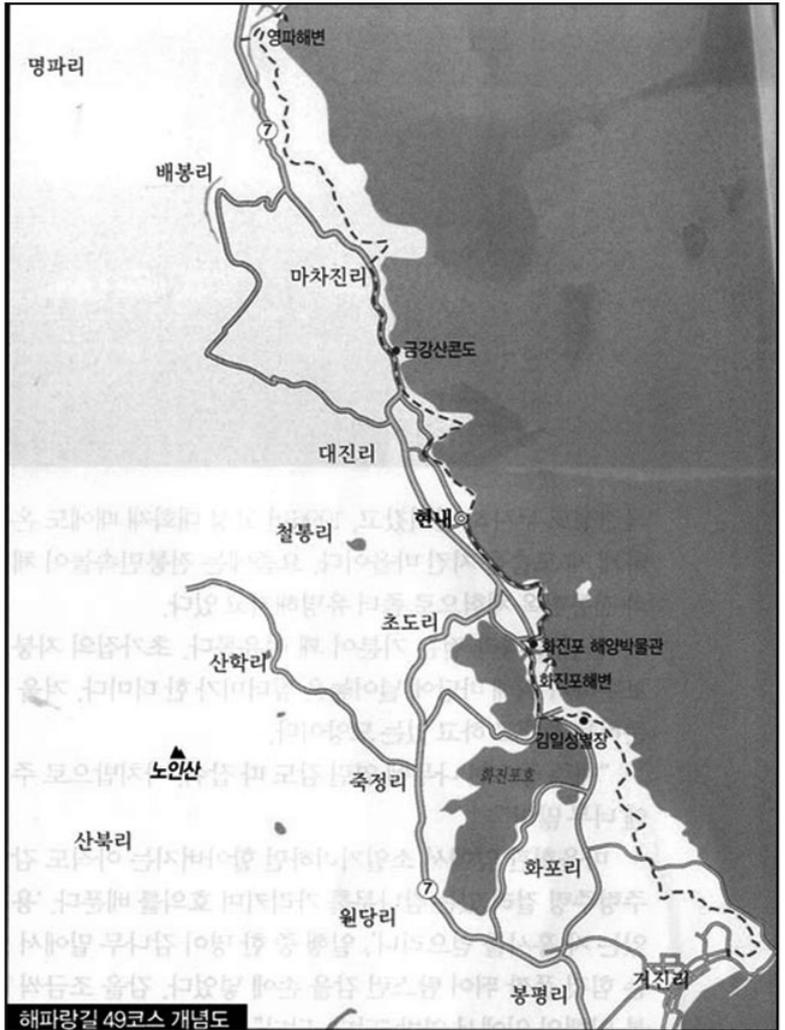
글 D

[걷기 길 | 해파랑길 고성 구간] 붉은 해와 푸른 바다, 파도소리와 친구 되어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긴 해안선을 걷는 길로, “해파랑”이란 이름의 뜻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색인 “파랑”, 그리고 “~와 함께”라는 조사의 “랑”을 합친 말이다. 조합해 보자면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란 뜻이다.

5           오늘 오후에는 해파랑길 49코스 중 일부로, 거진항에서 출발해 해맞이 산책로~ 화진포산을 지나 화진포 해양박물관까지 걸었다.

10           거진항에서 화진포산을 올라가는 길은 꽤 멋있는 산책로다. 자작나무며 소나무가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약 20분을 걸으니 바닷가 절벽에 엮어놓은 듯한 전망대가 나타났다. 앞으로 펼쳐지는 동해 바다의 풍광이 절경이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이른 아침 동해 일출의 장관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를 지나 도로로 잠시 내려온 후 길을 건너 다시 산길로 올라서니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된다. 동네 뒷산에도 못 미치는 높이긴 하지만 갑자기 고도를 올리니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었다. 숨이 적당히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벌써 화진포산 정상에 닿았다. 이곳은 “이번 49코스 구간 중 가장 볼만한 경치”란다. 서둘러 돌탑에 서니 절로 “와~”하고 탄성이 터져 나온다.



35           “좌 화진, 우 동해”라, 언뜻 보기엔 어느 것이 호수이고 어느 것이 바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저 좌우 물길을 따라 계속 눈을 돌리면 결국엔 왼쪽에선 울산바위가, 오른쪽엔 끝이 없는 지평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호수와 바다를 겨우 알아낸다. “야, 우리가 이걸 보려고 여태까지 걸었네!”

“이거 안 보고 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 했다!”  
 40 여기저기서 탄성이 이어진다. 시원하게 트인 경관이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건 그대로 작품이 된다. 돌탑 왼쪽의 길로 내려와 길을 건너 오른쪽으로 들어서서 나지막한 산 하나를 넘어 해변 뒤쪽의 솔길로 방향을 잡는다. 이내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도착했다.

49 코스의 정식구간은 박물관을 지나 대진등대~금강산 콘도를 지나 명파초교까지 이어진다.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니 걸어갈 길은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약간 아쉬웠다.

## 걷기 길잡이

### 49구간

45 가진 활어센터~역사안보전시관~화진포해양박물관~대진등대~금강산콘도~명파초교 (16km, 약 6시간 30분 소요)  
 (사)한국의 길과 문화 홈페이지([www.tnc.or.kr](http://www.tnc.or.kr))의 자료실로 가면 해파랑길 전 구간의 GPS 트랙이 표시된 지도를 볼 수 있다. 미리 지도를 살펴보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

### 교통

서울→간성 동서울터미널에서 1일 16회(첫차 06:29, 막차 21:10) 간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가 운행한다.

50 자가용은 서울춘천고속도로→동홍천IC 속초•인제•신남 방향→미시령터널→교동지하차도사거리 고성•간성 방향 좌회전→삼포→거진→고성.

손수원, 조선일보 (2013년 1월 21일자)

---

\* 고도: 바닷물 표면을 0으로 하여 잴 높이